

사마천(司馬遷)의 경제사상



강의 개요

2

1. 배경
2. 『사기史記』의 구성과 체계
3. 「화식열전 貨殖列傳」

1. 시대적 배경

3

□ 전한의 상황(기원전 206-)

1. 고조 유방劉邦
2. 여태후呂太后
3.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文景之治
- 4.武帝(기원전 141-87 재위): 팽창정책/최대영토 (+ 한사군)
5. 사마천司馬遷(기원전 145-90?)

사마천은 누구인가?

4

- 조부 사마희司馬喜: 쌀 4천석으로 9등급의 오대부 작위 매입
- 부친 사마담司馬談: 태사령太史令, 무제 때 천문과 문서의 기록 담당.
- 龍門(지금의 陝西성 韓成) 출생.
- 고향에서 10세부터 고문(상서, 춘추좌전, 국어國語 등)을 암송. 나중에 부친이 있던 수도로 이주.
- 19세: 수도 장안에서 출발하여 장강(양자강), 회하 유역 및 중원 지역 유람, 풍속고찰, 전설 수집.
- 25세: 감군監軍으로서 서남이 지역에 군현의 설치에 참여.
- 41세: 부친 사마담(3년전 사망)의 태사령(직급, 6백석: 현령과 동급) 승계.
- 48세: 『사기』 집필 시작.
- 55세(기원전 91년): 『사기』 완성
- 90년(56세)경 사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자료 없어



2. 『사기』는 어떤 책인가?

5

□ 구성과 체계

1. 본기本紀 12권,
2. 연표年表 10권,
3. 서書 8권,
4. 세가世家 30권,
5. 열전列傳 70권

□ 모두 130권, 글자 수는 52만 6500여자.

□ 기전체紀傳體의 효시, 24사; 삼국사기, 고려사

본기(本紀): 정통왕조와 제왕(편년체), 대일통

6

- 1. 오제 본기(五帝本紀: 황제黃帝-전욱顓頊-고령-요堯-순舜)
- 2. 하 본기(夏本紀)
- 3. 은 본기(殷本紀)
- 4. 주 본기(周本紀)
- 5. 진 본기(秦本紀)
- 6. 진시황 본기(秦始皇本紀)
- 7. 항우 본기(項羽本紀)
- 8. 고조 본기(高祖本紀)
- 9. 여태후 본기(呂太后本紀)
- 10. 효문 본기(孝文本紀)
- 11. 효경 본기(孝景本紀)
- 12. 효무 본기(孝武本紀)

표表

7

- 1 삼대 세표(三代世表)
- 2 십이 제후 연표(十二諸侯年表)
- 3 육국 연표(六國年表)
- 4 진초지제 월표(秦楚之際月表)
- 5 한흥 이래 제후왕 연표(漢興以來諸侯王年表)
- 6 고조 공신후자 연표(高祖功臣侯者年表)
- 7 혜경 간 후자 연표(惠景閒侯者年表)
- 8 건원 이래 후자 연표(建元以來侯者年表)
- 9 건원 이래 왕자후자 연표(建元以來王子侯者年表)
- 10 한흥 이래 장상명신 연표(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예) 십이 제후 연표(十二諸侯年表, 기원전 841-447년)

8

公元前	年	周	魯	齊	晉	秦	楚	宋	衛	陳	蔡	曹	鄭	燕	吳
841	庚申	共和元年 厲王子居召公宮， 是為宣王。王少，大臣共和行政。	真公湏十五年，一云十四年	武公壽十年	靖侯宜臼十八年	秦仲四年	熊勇七年	釐公十八年	釐侯十四年	幽公寧十四年	武侯二十三年	夷伯二十四年		惠侯二十四年	
840		二	十六	十一	晉釐侯司徒元年	五	八	十九	十五	十五	二十四	二十五		二十五	
839		三	十七	十二	二	六	九	二十	十六	十六	二十五	二十六		二十六	
838		四	十八	十三	三	七	十	二十一	十七	十七	二十六	二十七		二十七	
837	甲子	五	十九	十四	四	八	楚熊嚴元年	二十二	十八	十八	蔡夷侯元年	二十八		二十八	
836		六	二十	十五	五	九	二	二十三	十九	十九	二	二十九		二十九	
835		七	二十一	十六	六	十	三	二十四	二十	二十	三	三十		三十	
834		八	二十二	十七	七	十一	四	二十五	二十一	二十一	四	曹幽伯彊		三十一	

□ 예악, 법률, 달력, 천문, 제사, 수리사업, 경제정책 등 개별적인 주제

1 예서(禮書)

2 악서(樂書)

3 율서(律書)

4 역서(曆書)

5 천관서(天官書)

6 봉선서(封禪書)

7 하거서(河渠書)

8 평준서(平準書)

- 춘추전국시기의 제후국들 16개
- 한 시기의 권문귀족 5개
- 공자, 진섭陳涉(진승勝), (한시기) 외척세가
- 한의 황제에 의해 분봉된 제후왕들 12 가문 등

- 유명한 평민들(정치가, 사상가, 장군, 학자들)
- 각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자객, 유협, 흑리, 권력주변의 아첨꾼, 변론가, 점쟁이, 유림, 재력가 등)
- 주변의 민족들(흉노, 남월, 동월, 조선, 서남이, 대원 등)에 대한 최초의 기록.
- 화식열전

□ 사기 저술의 의의

“일찍이 부친은 ‘주공(周公)이 죽은 지 5백년이 지나 공자(孔子)가 태어났다. 공자가 죽은 후 지금 5백년이 된다. 능히 큰 도(道)가 밝았던 세상을 이어 받아....『춘추(春秋)』의 뒤를 저술하여 시詩· 서書· 예禮· 악樂의 근원을 규명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고 하셨는데, ... 내 어찌 겸손만 부리고 있겠는가?”(태사공 자서 太史公 自序)

+ 천도天道

4. 경제사상 “화식열전”

13

- 인간의 욕구; 개인적, 사회적 측면
- 욕구의 절제에 바탕을 둔 자급자족의 소규모 공동체를 주장하는 노자老子에 대한 비판.
- 경제와 정치도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물자들은 어디에서나 생산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적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업은 불가피. (통상적 중농사상에서 벗어남)

□ 老子 (자연의 평화와 만족)

- “나라는 작게 하고 백성은 적게 한다. 편리한 기계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게 한다. 백성들이 죽음을 중시해 멀리 옮겨 다니지 않게 하고,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지 않고, 무기가 있지만 배치할 일이 없게 한다. 백성들에게 다시 새끼줄을 묶어 기호로 사용하게 하고, 주어진 의식주와 풍습에 만족하며, 이웃 나라와 서로 바라다보이고 닭이나 개의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게 한다.” (노자)

- 인간의 본성:
- (노자의 도/이상사회는) " 백성의 귀와 눈을 막으려해도 거의 실행할 수 없을 것"
- "(인간의) 귀와 눈은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여 모두 듣고 보려 하고, 입은 소와 양 따위의 좋은 맛을 다 보려 하며, 몸은 편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마음으로는 위세와 영화를 원한다. 그와 같은 습속이 백성의 마음에 스며든 지 오래다."
- "최선의 위정자爲政者는 백성의 마음에 따라 다스리고, 다음의 위정자는 이익으로써 백성을 이끌고, 그 다음의 위정자는 백성을 가르쳐 깨우치고, 그 다음의 위정자는 힘으로써 백성을 바로잡고, 최하의 위정자는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자연경제구역

- 사기『화식열전』 : 산서山西·산둥山東·강남江南·용문龍門 및 갈석碣石 이북 등 4개로 구분하고, 15개로 세분하여, 각각의 지역에 따른 특산물들을 소개.



- “산서에는 목재·대·닥나무·마·야크·옥석이 풍부하고, 산
동에는 물고기·소금·옷·명주실·미녀·가희歌姬가 많다.
강남에는 녹나무·가래나무·생강·육계肉桂·금·주석·납·단
사·무소·거북·구슬·상아·무소가죽 등이 난다. 용문龍門
과 갈석碣石 이북에는 말·소·양·털옷·짐승의 힘줄과 뿔
이 많다. 구리와 철은 마치 바둑판을 놓은 것처럼 사방
천리에서 난다.”

(분업을 통한 의식과 풍습의 자원 공급)

18

- “농민은 식량을 공급하고, 나무꾼은 목재를 공급하며, 공인은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고, 상인은 그것을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은 위로부터의 정교(政敎)에 의한 지도나 징발, 정기적 모임을 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政敎發徵期會)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 능력에 따라 그 힘을 다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물건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비싼 것은 싸질 징조라 하여 적당히 팔고 사며, 각자가 그 생업에 힘쓰고 일을 즐기는 상태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을 쉬지 않는다. 물건은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고, 강제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이 그것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참으로 도와 부합하는 것이며, 자연의 이치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분업과 유통: A. Smith

□ 부의 중요성

- 기본욕구(衣食)의 중요성: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해야 영욕을 안다."는 관중管仲의 주장을 인용.
- 부의 사회적/현실적 중요성: "천금의 아들은 시장에서 죽지 않는다."(유전무죄); "부유한 사람이 세력을 얻으면 더욱 드러나고, 세력을 잃으면 빈객도 줄어 쓸쓸하게 된다."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즐거이 이(利) 때문에 모여들고 얹히고 설키고 떠난다." "공자의 이름을 천하에 널리 떨치게 한 것은 (부유했던) 자공(子貢; 子賜)이 보좌하여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 부의 영속성: "소봉素封"(국가의 봉록이나 작위 및 영지가 없이 순수하게 재산을 통한 생활의 안정, 마치 분봉을 통해 영지에서 조세를 받는 것처럼 일정한 재산을 통해서 이자나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
- 사회적 부와 개인적 부
- 사회적 부: 자원의 크기와 효율적 배분
- 개인적(가정적) 부: 개인의 능력과 부의 상관성

국가의 역할

20

- **적정 수준의 개입(?):** 음양에 따른 주기적인 생산의 변화는 불가피, 그에 대한 대응
- “6년마다 풍년이 들고, 6년마다 한해가 들며, 12년마다 대기근이 일어난다. 쌀값이 한 말에 20전 이하로 너무 싸면 농민이 고통받고, 90전 이상으로 너무 비싸면 상인이 고통받는다. 상인이 고통받으면 상품이 나오지 않고, 농민이 고통받으면 농경지가 황폐해진다. 비싸더라도 80전을 넘지 않고, 싸더라도 30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 농민과 상인 모두에게 이롭다. 쌀값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물자가 공평하게 유통되며, 사방의 화물이 관문을 통과하여 시장으로 나오고, 나라 안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이다.”

- (인위의 측면에서) “농업으로 부를 얻는 것이 최상책이고, 상업에 의한 것이 다음이며, 간악한 수단으로 부를 잡는 것은 최하책이다.” “빈천하게 살면서 인위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으로부터 부를 얻는 데에는 농업은 공업만 못하고, 공업은 상업만 못하다.”

부의 축적 사례

22

- 축의 탁씨: 포로로 가까운 곳에 거주했던 사람들과 달리 먼 철산에 들어가 제철업으로 부를 축적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
- 정정: 제철업+서남이 사람들과 교역
- 완완의 공씨: 제철업+제후들과 교류
- 조나라 병씨: 대장장이+검소함+대금 " 앞드리면 물건을 줍고, 우러르면 물건을 취하라"
- 제나라 조간: 사람들이 천시하는 노예를 대우, 고용하여 물고기와 소금장사시켜 축적
- 선곡의 임씨: 금옥이 아닌 곡식을 축적, 나중에 전쟁으로 곡가 올라 축적.
- 무염씨: 종군을 앞둔 제후들에게 고리에 자금을 빌려주어 축적

- "(위의 부자들은) 모두 작음이나 봉록을 갖거나 교묘하게 법률을 이용하여 나쁜 짓을 행하여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모두 사물의 이치를 주축하여 행동함으로써 시운에 순응하여 이익을 얻고, 상업에 의해 재물을 쌓고, 부유한 몸이 되어서는 농사에 종사하여 부를 지켰다. 즉 처음에는 과감하게 시류에 맞서 성과를 거두고 뒤에는 常法을 지키며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 성과를 지켰다."
- "부를 얻는 데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물에는 일정한 주인이 없다.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재물이 모이고, 못난 자에게는 재물이 흩어진다. 천금을 모은 집은 한 도시를 보유한 군주에 필적하고, 특히 많은 부를 가진 자는 왕자와 즐거움을 같이 한다."(소봉)